

# Photonics Industry + News



## 광주광역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주가 '으뜸'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주가 '으뜸'  
2009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서  
문화도시, 친환경 도시 등 3개 분야 대상 영예

광주광역시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09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문화도시, 친환경도시 등 3개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광주광역시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친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전국 소비자 평가에서 대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시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09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문화도시, 친환경도시 등 3개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상 수상은 전국 소비자 167만 명이 직접 지지체의 인지도, 신뢰도, 선호도를 평가한 것으로 광주광역시는 지자체 부문에 참여한 231개 기관 중 경제, 환경, 문화 등 가장 핵심적인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해 주목을 끌었다.

광주광역시의 이번 대상 수상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친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온 점, 광주비엔날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문화도시 브랜드를 확고히 인식시킨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은 MBC, 동아닷컴, 한경닷컴 공동주최로 총 167만 명의 소비자 호감도 조사와 전문가 인증심사 등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으로 광주광역시의 도시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광주사랑)

## 한국광기술원, LED 조명제품 규격 가이드 교육 개최

내수를 넘어 지구촌을 LED로 밝히기 위해 수출 전선에 나서는 국내 LED 조명업체들에게 북미와 유럽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신뢰도 높은 국제 인증 규격의 요체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광기술원(원장 유은영)은 세계 최대의 안전 표준 인증기관이자 미국의 전기안전시험인증 중 가장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UL의 지원을 받아 지난 4월 28일 한국광기술원 본부동 4층 제2회의실에서 'LED 조명제품 규격 가이드 교육'을 실시했다.

UL Korea사 소속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LED 조명제품에 대한 국제규격으로 CE와 UL 및 EMC 등 미국, 캐나다 등 북미시장과 유럽의 선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필수규격들이 소개되고 이들 규격들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 등에 관한 교육이 실시됐다.

CE는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의 통합규격 인증마크로 유럽연합(EU) 지역에서 판매되는 지정제품에 부착되는 안전 마크이며, EC지령(유럽공동체각료이사회가 발령한 지령)이 나타내는 안전규제에 적합한 제품에만 부착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유럽지역의 적합성 표시 제도이다.

또한 UL은 전 세계 제품 안전성 검사 및 보증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 내 대표적인 산업안전 표준규격 인증기관의 규격으로 이 인증을 취득해야만 세계 최대 조명부품 시장인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날 UL 관련 교육에서는 특히 LED 모듈, LED 배열(Array), 파워 소스, 제어판 회로와 같은 LED 광원의 부속품을 포함한 LED 조명제품의 기본적인 구조안전규격을 기술한 UL 8750과 컨버터 내장형 조명기기 등의 규격을 기술한 UL 1993이 집중 소개됐다. 또한 LED 조명기기의 전자파 방사 및 내성 규격에 대한 북미, 유럽, 호주/뉴질랜드, 일본/중국/대만 등 세계

각국의 EMC 관련사항도 함께 설명됐다.  
(출처: 한국광기술원)



## LG전자, 美 휴대폰 고객만족도 1위

LG전자가 미국 최고 권위의 시장조사기관 제이디 파워(J.D. Power and Associate)의 '2009 휴대폰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03년과 2005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 1위 등극이다.

LG전자에 따르면, 제이디 파워가 1만 5천여명의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디자인(30%) ▲사용성(30%) ▲배터리성능(20%) ▲기능(20%) 등 총 4개 항목으로 진행한 고객만족도 종합 평가에서 LG전자는 1천점 만점 중 733점을 획득하며 1위에 올랐다. 이는 전체 평균 707점을 훨씬 웃도는 점수일 뿐 아니라 2위인 소니 에릭슨(712점) 등 글로벌 휴대폰업체들보다 월등한 수준이다.

특히, 4개 항목 중 LG전자는 전통적 강점인 디자인, 사용 편리성, 그리고 음악,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기능 구현에 필수적인 배터리성능 분야에서 경쟁사들을 압도했다. 또, 제이디 파워가 올해 처음 발표한 '2009 스마트폰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772점을 기록, 791점을 받은 애플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출처: LG전자)

## 삼성전자, 진정한 240Hz LED TV 8000시리즈 출시

'진정한' 240Hz LED TV가 나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부터 수도권 주요 백화점 26곳을 시작으로 삼성 파브(PAVV) LED TV 8000시리즈 116cm(46인치), 139cm(55인치)를 일제히 판매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는 LED TV 8000시리즈를 미국 시장에는 지난 20일부터 베스트바이(BESTBUY) 등 주요 유통에 공급해 판매를 시작했으며, 5월 중 유럽, 동남아 등에도 본격 출시할 계획이다.

LED TV 6000/7000에 이어 8000시리즈도 글로벌 동시 론칭으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올 초 미국 CES 2009와 지난 3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제1회 삼성구주포럼'에서 전 세계 언론과 거래선 등을 대상으로 LED TV 6000/7000/8000 시리즈를 공개하며 순차적 출시를 예고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120Hz 제품인 기존 LED TV 6000/7000시리즈 6개 모델에 이어 240Hz인 LED TV 8000시리즈 2개 모델을 추가함으로써 업계 최초로 기능별, 사이즈별, 가격대별 LED TV 풀 라인업을 구축, 고객들의 LED TV 선택 폭을 넓히는데 성공했다.

삼성전자 LED TV 라인업에 또 하나의 '비밀병기'인 세계 최고속 패널 240Hz LED TV 8000시리즈가 추가됨으로써 지난 3월 출시 이후 세계 TV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삼성전자 LED TV가 새로운 추진력을 얻게 됐다.

〈출처 : 삼성전자〉

## 한국고덴시, 닌텐도향 LED제품 수주증가에 따른 증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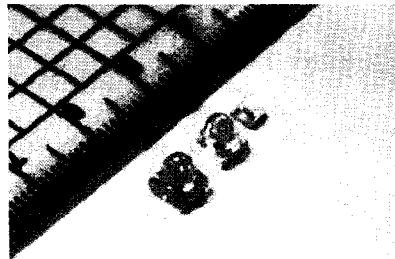
광반도체 센서 및 LED, 광통신, Solar Cell 개발/제조업체인 한국고덴시(주) (대표 나카지마 히로카즈 hppt://www.kodenshi.co.kr)는 가정용 게임기 닌텐도향 LED제품의 수주증가 따른 설비 증설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 가정용 게임시장을 휩쓸고 있는 닌텐도에 한국고덴시는 작년부터 LED를 공급하고 있

며, 올해 들어 LED제품에 대한 점유율 확대로 수주가 증가하였으며, 2억 6천만원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고덴시는 닌텐도 외에도 일본 빠징고, 게임 기업체에 LED Package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고덴시는 최근 조명분야에 각광받고 있는 Visible LED(표시용 발광다이오드) 뿐만 아니라 IRED(적외 발광다이오드) 및 LED를 이용한 광센서 분야에서 초소형, 고효율LED패키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고덴시는 향후 매출액 중 LED 매출 비중을 20%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더 많은 LED 개발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 LS그룹, 하노버 메세에 미래성장 동력 제품 대거 출품

LS그룹은 지난 4월20일부터 24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하노버 메세에 LS전선, LS산전, LS-Nikko동제련, SPSX, 대성전기(지난해 인수한 자동차 부품전문기업) 등 주력 회사들이 공동으로 참가했다. 한국기업으로 최대크기인 34부스(304m)로 참가, LS그룹의 유럽시장에 대한 진출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LS그룹이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와 하이브리드 & 전기자동차와 같은 미래형 자동차 분야 등 녹색성장사업을 주 테마로 선정하여 글로벌 리딩 제품들을 유럽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기회로 삼고 있다.

LS전선은 이번 박람회에 Green Solutions을 대거 선보이고 있는데 특히 초전도케이블을 비롯하여 지능형 송전 운영시스템 등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 지능

형 전력망) 분야와 해저케이블, 풍력케이블, 친환경 자동차용 부품 등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LS전선은 최근 영국 판매법인을 통해 초고압 케이블과 광통신케이블 판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3년간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현재 50%대인 제품의 친환경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 올려 유해 물질에 대한 규제가 심한 유럽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200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9번째 이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는 LS산전은 주력 제품인 수송(Susol / 전력기기 브랜드)과 PLC, 태양광 발전용 패널을 비롯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전기자동차용 인버터(PCU)와 동력을 끊고 이어주는 릴레이(Relay) 등 전기자동차용 핵심 부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LS산전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올해부터 Green Business사업을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2012년까지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10%대인 이 분야 비중을 오는 2012년에는 매출 3조원의 25%대인 7,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LS-Nikko동제련은 세계 최초로 전기동 표면 등급을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동검사시스템과 로봇을 적용한 전기동 자동탈취시스템 모형 등을 선보이고 있으며, SPSX는 초고압 변압기와 발전기 등에 사용되는 권선(Enameled Wire)을,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인 대성전기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용 핵심 부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박람회 기간 중 유럽지역 바이어와 달리 100여명을 초청해 LS그룹과 주력 회사들의 경영전략과 유럽시장 진출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출처 : LS전선〉

